

익산 미륵사지 석탑, 20년 보수 마무리

단일문화재 중 최장 기간...사업비도 2번째 12월 일반 공개...내년 3월12일 공식준공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국보 제11호)이 20년에 걸친 보수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탑 유산 중 하나인 이곳은 1998년 구조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수리 결정됐다.

해체 보수를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일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리를 마친 석탑 모습을 공개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향가 '서동요' 주인공 공이자 백제 후기에 중흥기를 이끈 무왕(재위 600~641) 시대에 지은 건축물이다.

미륵사를 구성한 3탑 3급당 중 서탑인

이 탑은 목탑처럼 석재 2,800여 개를 짜맞춘 형태로 석탑 양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16세기 전후 절이 황폐화하고 벼락을 맞은 석탑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어긋난 상태로 자리를 지켰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붕괴된 부분을 시멘트로 땀질해 응급 보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01년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 미륵사지 석탑은 이날 높이 14.5m, 6층 탑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미륵사지 석탑은 본래 25m 높이로 추정된다. 18세기 기행문 와유록(臥遊錄)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7층까지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탑을 어떠한 상태로 보수 복원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6층까지 세우는 부분복원안으로 결론 났다.



이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는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 기간 체계적인 수리가 진행된 사례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230억 원으로, 송례문 복원(250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연구소는 다음 달 말 석탑 외부에 설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의 미륵사지 서쪽 석탑(국보 제11호)이 20년간 수리를 마치고 20일 설명회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리 후 미륵사지 석탑(동북측면).

한 가설 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를 시작해 12월에는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식 준공식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사리가 봉양된 날짜(639년 정월 29일)를 음력으로 맞춘 것이다.

/이연수 기자



체코국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임을 위한 행진곡' 프라하에서 울려 퍼진다

내달 7일 리히텐슈타인 궁전서 창작 관현악곡 첫 국외 공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체코 프라하에서 클래식 선율로 울려 퍼진다.

20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체코 프라하 공연이 오는 7월 7일 오후 7시 체코 리히텐슈타인 궁전 내 마르티누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5월 추모곡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클래식으로 재탄생해 국외에 첫선을 보이는 자리다.

연주되는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김종률)을 주제로 한 황호준 작곡 '임을 위한 서곡' 과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38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음악회'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와 김홍재 지휘로 초연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체코를 대표하는 야냐ček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가 지휘봉을 잡고 체코 내셔널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는 한국에서 KBS교향악단, 울산시향 객원 지휘와 함께 지난해 열린 '정음성음악회-클래식의 밤' 당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특히 피르스터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사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프라하 공연의 고리가 됐다.

/이보람 기자

한국적 풍광의 서정적 구사

G&J광주·전남 갤러리 송연식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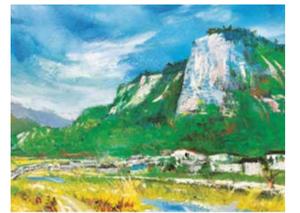
송연식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인 사동G&J광주·전남갤러리에서 26일까지 열린다.

송연식 작가의 작품은 흔히 말하는 인상주의 화풍의 자연을 소재로 하는 한국적 풍광을 서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향토적 소재와 화면구성, 색감을 통해 순수 가치의 진정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창 병바위', '나주 배앗', '무등설경', '달빛 소나타' 등 고향의 정취를 담은 회화 30여점을 선보인다.

인상주의적 감각의 회화를 추구하는 작가는 자연을 빛날듯 빛에 의한 색채의 대비와 깊이 있는 정서적 표현을 수용하며, 세련된 순발력과 묘사력으로 재해석한다.

송 작가의 순발력과 감성, 감각은 사물



'고창 병바위'

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원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드러내듯 자연을 재현하며 형이상학적 경계를 뛰어넘는 견고성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전남대학교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신형희, 조형21그룹, 불휘기론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문의 02-725-0040.

/이연수 기자

대만 두 거장 영화로 만나다

광주극장, 에드워드 양-허우 샤오시엔 특별전도

광주극장은 신작 개봉과 함께 대만의 두 영화 거장의 특별전을 마련한다.

21일 세상의 모든 개들이 사라진 미래 도시, 사랑하는 개 스파츠를 찾아 떠난 소년 아타리와 그를 돕는 다섯 마리 특별한 개들의 색다른 어드벤처를 그린 '개들의 섬'이 새롭게 관객을 찾는다.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로 애니메이션 최초로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및 은곰상을 수상했다. 리우드 최고의 비주얼리스트다운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아름다운 미장센과 함께 그의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개봉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폭력적인 아빠와 이혼한 엄마를 돕기 위해 치열한 양육권 싸움에 뛰어드는 아들 줄리앙의 이야기를 담았

다.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는 선보이며, 특히 마지막 15분은 예기치 못할 정도로 강렬하다.

섬세하고 정교한 연출력으로 제74회 베니스영화제 감독상과 미래의 사자상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차세대 주목해야 할 감독 10인에 선정된 자비에 르그랑과 놀라운 아역 배우 토마 지오리아의 존재가 영화의 몰입도를 한층 높인다.

오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대만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두 거장 에드워드 양과 허우 샤오시엔의 대표작을 상영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만 뉴웨이브 영화는 1980년대 초반 영화검열 폐지 등의 정책변화와 젊은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열정이 결합돼 등장해 사실적인 묘사와 새로운 미학적 시도로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물

결을 주도해 왔다.

오는 30일에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최고의 걸작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과 53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양 감독의 마지막 작품 '하나 그리고 둘'이 29일과 7월 1일에 상영된다.

대만 현대사에 대한 탐구 속에서 새로운 영화미학의 지평을 넓혀온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작품 3편은 모두 오는 7월에 상영된다.

14일에는 1986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상을 수상한 '동년와사'가, 21일에는 현대 대만이 산업사회로의 이행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연연풍진'이 상영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제46회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허우 샤오시엔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부상시킨 '비정성시'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필름상영된다. /이보람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